TWitter INTERVIEW

돌아온 넥센맨 이택근

넥센 타선에 불이 붙은 이유는 이택근(32)이 3번타자를 맡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LG서 넥센으로 복귀한 그는 강정호처럼 많은 홈런을 치지도, 박병호처럼 많은 타점을 올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때그때 팀이 원하는 역할을 해낸다. 팀이 가능한 쉽게, 또 많이 득점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 등 팀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박병호와 강정호가 "(이)택근이 형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택근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그의 친필 사인볼(MAX스포츠 제공)을 받을 3명의 트위터 질문 당첨자는 @Heavy_, @YCL_107, @sunnyhko다.

이택근은 넥센이 처음으로 영입한 프리에이전트(FA)다. 넥센은 2009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G로 떠나보냈지만 살림이 나아지자마자 이택근을 다시 불렀다. 트레이드 때 받은 현금보다 훨씬 큰 액수의 계약이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스포츠동아 DB

불 붙은 타선? '넥센표 FA' 희망 봤잖아요!

-넥센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아졌나요?(@opallios21)

"이전에 갖고 있던 패배의식, 기존 선수들이 빠지면서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졌던 것 같은데 저나 (김)병현이 형 들어오면서 '회사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수들에게도 희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이택근 선수에게 넥센이란?(@okskjs)

"제가 이때까지 야구선수로 있게 해준 팀이고, 대학을 졸업 후 처음부터 힘든 것과 좋은 것을 다 이룬 추억이 있는 팀이죠."

-이택근 선수가 넥센에 오면서 클린업트리오도 더 탄탄해진 것 같고, 다른 선수들도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팀의 순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rldems430)

"제가 와서 변했다기보다는 워낙 힘 있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니까 잘할 것으로 생각했고요. 지금 성적이 좋다고 해서 시즌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잘될 때는 다 잘되는 거니까. 처져 있을 때 어린선수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힘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2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오셔서 여전히 친한 동료도 많지만, 초면인 동료도 많을 겁니다. 아직 어색한 동료가 있다면 누군가요?(@Myhyun)

"글쎄요. (팀에) 친구가 한명도 없었어요. 이번에 (최)경철이가 SK에서 와서 친구가 생겨 좋은데 아직은 어색해요. 같은 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같이 생활한 적이 없어요. 친해져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성훈이가 있었죠."

-선수들도 성적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지. 누구랑 자주 드시는지.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o_bea_gun)

"술은 원래 잘 못 마시고요. 체질이 약한지 술이 몸에 잘 안 받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자요."

-선수단 전체를 포함해서 이택근 선수에게 애교를 잘 부리는(?) 투수조 야수조 선수 한명씩만 꼽아주세요.(@Heavy_)

"투수는 좀 많아요. 문성현, 강윤구 둘이 많이 애교를 떨고요. 야수에서는 (장)기영이. 나이가 좀 있는데 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에요. 그냥 뭐 스킨십. 어깨 주물러주고, 툭툭 치고, 안마도 해주고, 어린 선수들이 그런 걸 잘해요."

-이택근에게 야유란?(@heartierH)

"애매하네요. 야유하시는 건 이해해요. LG 있을 때 힘들었고,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일일이 찾아가서 LG팬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디어에서 제가 하지 않았던 말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기사들, 저는 그런 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유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라이벌 선수는 누구인가요?(@okskjs)

"전 라이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신경 쓰면서,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 제 야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상도 있을 수 있고, 남들 따라하다 보면 다른 안 좋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제 자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병현이 형이 들어오면서
구단의 투자의지에 선수들 자극

선배는 택자, 후배는 TG라 부르지만
팬들이 지어준 '택근 V' 마음에 쏙!

타석에서 귀찮게 하는 포수?
진갑용 선배가 말 걸면 혼란스러워!

이택근이 목동구장에서 트위터 인터뷰에 참여한 팬들에게 선물할 친필 사인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넥센 히어로즈

-택근V라는 별명 맘에 들어요? 택근V 말고 다른 원하는 별명이 있다면.(@YCL_107)

"좋아요. 태근V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팬들이 지어주신 것이라서 좋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팀 선배들은 다 택자라고 해요. 어린 선수들은 택자라고 하기 그러니까 TG라고 하죠. (택자도 마음에 들었냐고 묻자) 괜찮아요."

-이택근선수가 다른 선수들 자녀분들 귀여워하는 사진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결혼 후 자녀계획은 어찌 되시나요?(@shinhanwool)

"많이 낳고 싶어요. 애기들은 워낙 좋아해서요. 조카 2명 있는데, 쉬는 날 아이들 보러 가요."

-고향이 부산이신데 나중에 롯데에서 뛰실 생각은 없나요?(@shim0813)

"롯데요? 그냥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롯데가 좋죠. 고향이기 때문에 뛰고 싶고 정이 가는 건 사실인데 FA 선언을 해서 히어로즈라는 팀에 다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제 고향이죠. 롯데는 제 마음속의 고향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고향이죠. 예전에 롯데 응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덤덤해졌죠."

-포수에서 중견수로 포지션 변경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포수와 외야수는 너무 다른 포지션이라 힘드셨을 텐데요.(@juny9312)

"쓰는 근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포지션을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부상에 노출되죠. 썼던 근육이 바뀌는 거예요. 내야, 포수, 외야수 쓰는 근육이 다 달라요. 정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즐겨야죠. 지금까지는 야구를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하지 않았다면 부상도 많았을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타석에서 반갑게 혹은 귀찮게 말을 많이 거시는 포수님 있으세요?(@sunnyhko)

"많아요. (강)민호도 성격이 좋고, (진)갑용이 형은 선배라서 좀 말을 안 걸어주셨으면…. 너무 혼돈스럽고. KIA (김)상훈이 형도 제 선배고, 송산은 후배고. 다 선후배니까. '잘 맞냐' 등 사소한 대화해요. '빨리 빨리 치고 죽어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이택근 선수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생긴 야구선수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나요?(@shim0813)

"잘생긴 선수들 많잖아요. (심)수창이 잘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 팀에 잘생긴 선수 많아요. 수창이, (김)민우형, 또 누구 있나? 아! (김)병현이 형도 잘 생겼고.(웃음)"

정리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 30년 뒤 그리는 나의 모습은?

"지도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야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연습, 제대로 된 마인드 등 그런 것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어요. 편안한 데. 지금이 몸이 힘들고 물론 재미는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야구만 하고 살아서 그렇죠.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농가생활 그런 것 한번 해보고 싶어요."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o02

넥센 이택근은? ▲▲생년월일=1980년 7월 10일 ▲출신교=배정초~대천중~경남상고~고려대 ▲키·몸무게=183cm·86kg ▲프로 지명 및 경력=1999신인드래프트 현대 2차 3번(전체 24순위) 지명, 2003년 현대~2008년 히어로즈~2010년 LG~2012년 넥센 ▲2012년 성적=34경기 133타수 39안타(타율 0.293) 2홈런 17타점 7도루 ▲2012년 연봉=7억원

新 모악산 당조고추

2012년 3월 27일 방영! KBS 6시 내고향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新모악산 당조고추!!

新모악산 당조고추의 AGI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 시키므로 당뇨병, 비만증, 과당증, 성인병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

"A.G.I성분 국내 의과대학교 검증완료"

완주군특화사업 전북 완주군

가정의달 5월 200분 선착순 선물용BOX 이벤트

"1+1"

'당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넷/시장/마트/종묘사 등 유사품 주의!! 유사품에는 AGI성분이 없습니다. 유사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농부의 꿈 ▼ 검색창에 농부의꿈 입력하세요!!

과잉 섭취 저혈당 주의

생고추10kg / 고추잎차 100개/ 고추모종

문의전화 063-291-3338

농협 : 356-0519-2608-33 (농부의꿈:이미자)

발기콜, 오르가즘콜

* 발기콜+소원대로 롱타임 = 250,000원
* 조루증끝+소원대로 롱타임 = 180,000원

▶ 발기원리= 병원에서 성기 속으로 봉입플란트하는 것과 같은 원리고, 발기콜은 성기귀두와 몸통일부분은 안 덮어지고, 고환쪽 성기 몸통 일부분에 콘돔토시를 끼우고, 토시속으로 봉입플라트가 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80대, 성기확대자, 조루증 환자, 완전발기불능자도 즉시 발기되고 통증 없고 감각 좋고 길어지고 오르가즘에 오를 때까지 사정해도 시들지 않고 4시간 발기가 지속되어 아내의 불면증, 우울증, 뱃살, 의부증, 의처증 없어진다.

▶ 즉시 발기 안되고 조루증 안 없어지면 환불 보장.

▶ 링, 반지, 오링, 성기혈류충전기(펌프)처럼 성기목을 아프게 조이고 성기혈액을 즉사시켜서 영원한 발기불능자로 만드는 제품 아니다.

▶ 끓는 물에 녹는 가짜실리콘 발기콘돔은 독성과 발암물질 때문에 성기와 자궁에 질병과 암발병을 유발시키므로 사용하면 남, 녀 모두 해가된다.

▶ 발기콜은 끓는 물에 소독하는 진짜 실리콘 제품이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특허품(반영구적)

※ 발기약 안먹고 즉시 발기된다.

※ 표시나지 않고, 자연발기와 똑같아서 아내도 속는다.

010-9607-9970, 010-2762-2540
070-8243-9970

입금 : 농협 351-0180-1510-63 구인숙

독신남들에게 강추!!!

친구같이 연인처럼 같이 해줄!!

매력녀 안나!!

보관하기 편리해서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제품
남자라면 한번쯤 갖고 싶은 매력녀
그녀를 소유하면, 활력이 솟아납니다.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제조업체 경원에서
솔로탈출, 외로움을 달래줄 기회를 드립니다.
(꾸준한 연구,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가방, 펌프, 러브젤2개, 질2개, 파우더, 콘돔, 바이브레션(건전지), 섹시팬티
출시기념으로
(파워링, 핸드잡, 진동자링외 더 많은 선물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70-4103-2818
PHONE : 010-3412-3044
입금계좌 302-0124-3415-71 (농협 김지호) 통신판매0464호